

大學에서의 女性學教育

姜 文 姬
(서울女大 女性研究所長)

우리나라에서의 여성학에 관한 관심은 1970년대에 주로 女子大學들을 중심으로 점점 높아져 왔다. 이 글에서는 大學에서 女性學을 교수하는 데 따른 문제점과 方向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I. 머리말

女性學이란 원래 英語의 Women's Studies에서 비롯된 말이다. 'Women's Studies'란 어휘는 학자에 따라서는 'Study of Women'이라는 말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後者는 여성이 客體가 되어,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서 주로 男性에 의해서 피상적으로 다루어진 반면에, 前者는 여성이 主體가 되어 女性人間化의 견지에서 여성의 제반 관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시도라고 구분짓는 것이다.

1960年代末에 미국 大學에서는 女性에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과정을 진행시켜 나가는 강좌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강좌들은 주로 '페미니즘(Feminism)'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여성해방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를 배경으로 하여 그 필요성이 절실

하게 비두되기 시작한 결과인 것이다.

1960년에 미국의 2개 대학에 신설된 여성학은 1970년에는 112개교, 1975년에는 152개교, 1981년에는 333개교, 그리고 1983년에는 442개교에 이르게 됨으로써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여성학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大學이 197개교, 석사학위 수여 대학이 51개교, 박사학위 수여 대학도 16개교에 달하는 성장율을 보여 주었다.

여성학은 또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유럽으로 번져 나갔으며 한국에서는 1977년 2학기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양선택과목으로 여성학이 처음으로 개설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우리나라의 여성학 강좌는 전국에 산재한 20여 개 대학에서 교양선택 혹은 교양필수 강좌로 개설되고 있으며 개설대학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여성학의 강의 내용이나 강의 방법 등이 大學에 따라 差異가 있음으로 해서 여성학이 한국 大學 현실에서 정착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된다.

II. 女性運動과 女性學

女性學은 女性運動(Feminism)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女性運動史를 간략히 서술할 필요가 있다. 비체로 지금까지 발간되어 온 여성운동사에 대한 研究論文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서양의 여성운동사를 보면 1792년 英國의 Mary Wollstonecraft가 「女性的 權利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en)」라는 책을 출간하여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비서 시작했다. Wollstonecraft의 논지는 여성의 ① 社會的·經濟的 權利 부여 ② 教育機會의 증가 ③ 家族內에서의 人間의 배우 ④ 평등한 부부관계 유지 등이었다.

1869년에는 John Stuart Mill이 역시 英國에서 「여성의 예속화(The Subjection of Women)」라는 책을 출간하여 여성해방운동에 커다란 자극제를 제공하였다. 이 책에서 Mill은 女性에 대한 法的 制約의 상태, 차별을 전제로 하는 教育, '아내다운 순종'을 강요하는 性과 道德의 倫理 등에 관한 문제들을 論理的인 필치로 전개해 나갔으며, 여성의 權利에 대한 그의 信念의 이유와 여성운동의 기본원리를 그의 「自由論」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Mill은 정치, 경제, 가족제도의 근본적 변혁과 思想的 혁명을 통하는 것보다 平等한 정의의 법칙 아래 女性的 參政권이나 공정한 재산분배법 등과 같은 法을 개혁하고, 教育을 통하여 女性的 意識化와 家族成員間의 完全한 平等으로 여성의 노예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여성해방론은 후에 여성의 參政권, 教育권, 취업권 등을 성취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社會主義的 여성해방론자인 F. Engels와 A. Bebel은 여성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이 資本主義體制의 노동착취주의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여성해방은 이러한 社會體制를 社會主義 혁명으로 대체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두 社會主義 理論家들은 결국 여성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모든 억압적 조건은 資本主義 社會체제의 問題點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社會체제의 변화, 즉 社會主義 社會가 되어 여성도 男性과 같이 社會經濟的 活動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共產主義 社會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성의 노동참여가 오히려 여성에게 과중한 二重, 三重의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 평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것 같다.

19세기를 통하여 차츰 고양되기 시작한 여성운동은 1920년 마침내 미국에서 參政권을 얻게 됨으로써 일단은 끝난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그 당시까지의 여성들의 운동은 이데올로기나 參政권과 같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여권 신장과 같은 형식적이고 外形의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그러나 1949년 Simone de Beauvoir가 「제 2의 性(Le Deuxieme Sexe)」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여권주의적인 해석에서 벗어난 性의 투쟁이라는 급진적인 해결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의 여권주의의 출발이라고 해석된다.

Beauvoir는 남녀가 진실로 平等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제도, 풍습, 여론 및 社會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성 개인의 實存的 自覺에 의한 主體性의 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實存的 哲學에 입각한 여성해방론을 주장하였다. 이 책은 프랑스 및 미국의 많은 여성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1965년 이후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직업적 역할과 배우, 기회의 均등 등을 주장하는 데로 향하여졌다. 여권운동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된 남녀 平等권이 아닌, 실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와 닿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구사하여 자아 실현의 기회를 성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로써 여성운동은 하나의 文化的, 哲學的인 경향으로 발전되었으며 大學에서는 여성학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여성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논문도 발표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의 여성운동은 民族과 時代的 배경

에 깊은 관련을 가진다. 西洋에서의 여성운동은 여권신장을 위한 對男性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운동은 民族의 자주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男性과 동지가 되는 協동관계에 있었음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1 운동을 전후하여 건국의 宗教團體, 학생층, 근로여성, 가정주부 및 기녀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필사적으로 항쟁하고 오랜 옥고를 치루거나 옥사하는 여성들이 속출함으로써 한국 여성들의 잠재력과 애국애족의 투철한 정신을 과시하였다.

근대 한국에 있어서 본격적인 여성운동은 사회주의의 세계조류와 보조를 맞추어 1924년에 '조선 여성 동우회'를 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들은 여성의 人間的 平等權을 주장하고 한국 여성의 이중적 노예상태(性的, 經濟的)를 지적하면서 급진적인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 40여 개의 여자청년회를 조직하고 문맹퇴치, 농촌제동, 토론, 교양강좌 등의 활동으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성과 서민의 편에서 서서 본격적인 여성해방운동을 펴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끈질긴 탄압으로 인해 1930년대 이후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여성운동의 활발한 움직임은 좌절당하고 말았다.

그 후 1950년대말부터 주로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대학 종사자나 또는 비학교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여성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저술을 펴내거나 또는 여성의 당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운동을 실제로 전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중 여권 운동의 중심과제는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여성, 도시 빈곤여성, 농촌여성의 교육, 경제, 사회적 복지 향상에 있으며 家族法 改定의 문제도 중요한 당면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Ⅲ. 女性學의 目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女性學의 발전과정은 여성운동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학의 목적은 몇 가지 차원에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우리의 의식 속에 배어 있는 여성에 대

한 편견을 파헤치고, 여성을 보다 과학적이고 客觀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女性의 自我觀, 自我像 및 價値觀과 權益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시킨다.

둘째, 여성의 자기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포부수준을 높이고 個人的인 生의 目標을 물론 社會에 대한 참여와 공헌을 肯定的인 方向으로 변화시킨다.

셋째, 여성과 남성간의 알력과 갈등관계에서 벗어나서 兩性間의 진정한 우의와 존경심을 함양시킨다.

넷째,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人間的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위에서 살펴본 여성학의 목적들은 여성학 자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에 국한된 교과과정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차원을 제시해 주는 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女性學 강좌를 女子大學에서 또는 男女共學大學에서 특히 女大生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결국 여성들이 여성의 性 役割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와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자기가 '되고자 하는' 人物이 무엇이며, 수행하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自我概念에 수정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들 때 어떤 方向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지 깊이 탐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Ⅳ. 大學에서의 女性學 강좌 개설 現況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0년대에 이르러서 우리나라 大學에서도 女性學에 대한 관심이 차차 일기 시작했다. 女性學이라는 제목의 강좌명으로 女性에 관련된 강의를 개설한 大學은 1977년 梨花女子大學校라고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현재는 남녀 공학을 포함한 20여 개의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마다 강좌명이나 강의내용, 그리고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들의 전공분야가 다양하여 女性學 교육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다음에서 女性開發院이 1985년에 전국 주요 大學을 중심으로 실시한 여성학 강좌에 관련된 설문지 조사의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응답한 대학 수는 21개 대학이었는데 이 중 女性學科가 설치되어 있는 大學은 學部課程에는 없었고, 大學院에 碩士學位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大學은 유일하게 梨花女大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학 관련 과목들은 大學마다 모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중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大學이 7개 大學이었으며, 교양선택과목으로 개설된 大學은 14개 大學이어서 대체로 여성학은 교양선택강좌로 개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學點別로 보았을 때 여성학을 1학점 부과하는 大學에서부터 4학점까지 취득하도록 하는 大學까지 있었다. 그러나 3학점을 부과하는 대학과 2학점을 부과하는 大學이 과반수 이상이어서 각각 9 및 10개 大學에 이르렀으며 1학점과 4학점을 부과하는 大學은 각각 1개 大學이었다.

따라서 여성학 강좌를 개설한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여성학을 교양선택과목으로 또는 3학점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학 강의의 내용은 大學마다 매우 다양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학 강좌는 다시 「여성과 사회」, 「여성과 교육」 등으로 세분화된 강의 제목이 붙으면서 1학기 동안 각기 강의 제목에 따른 해당 강사가 1주 또는 2~3주씩 강의를 담당하는 대학도 있었으며, 반면에 「여성학 개론」이나 「여성과 법률」 등의 강좌명으로 한 학기 동안 1인의 강사가 전담하는 大學도 있었다.

그 세분화된 여성학 내용을 유사한 강좌명끼리 모아서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았다.

이상에서 볼 때 여성학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은 동서양의 여성운동을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응답 大學의 반수 정도는 여성운동의 이념이나 배경 등을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반면에 여성과 법률, 가정, 사

<표 1> 여성학 강좌 명칭

강좌명칭	대학수
여성학(여성운동사)	11개
여성과 법률	8
여성과 가정	7
여성과 사회	6
여성의 심리학적 이해	5
여성과 문학	5
여성과 생리학	4
여성과 정치	4
여성과 교육	3
여성과 경제	3
여성의 인류학적 이해	3
여성과 직업	2
여성과 과학	2
여성과 종교	2
여성과 철학	1
농촌 여성	1

회와 같은 여성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강의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大學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 주제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해서 人文, 社會, 自然科學 측면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음은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한편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전공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여성학 강좌 담당 강사의 전공별 유형

교육 및 심리학	13명	법학	7명
사회학	7	문학	7
보건학	7	여성학	5
기독교학	5	경제학	5
정치학	4	철학	3
인류학	3	가정학	3
자연과학	3	역사	2

이상에서 보면 교육학이나 심리학 또는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여성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여성학의 강사로서 활용되고 있음이 특징이나 기초학문과 과학분야 전공자들 중에서도 여성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가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성학을 전공한 강사는 5명에 불과해서 여성학이 여성학 전공자에 의해서 강의된다기보다

는 다른 인접학문에서의 이론을 수용,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학 강좌의 開設時期도 다양했는데 1964년 서울女子大學에서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女性과 社會」라는 제목의 강좌가 1학점 교양필수로 제공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이 아마 가장 오래된 여성학 관련 과목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밖에 1973년 延世大學校에서 여성학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하여 2학점을 부과, 현재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화여자대학교가 1977년에 「여성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처음 개설한 것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여성학 강좌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여성학」 강좌와 「여성 관련 강좌」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V. 女性學 講座의 문제점과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女性學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學問들과의 協同으로 성립된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 문학,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종교학, 교육학, 역사, 법률, 정치, 경제 등 제반 학문분야에서 多學問的 또는 學際的 接近(Multi- 또는 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하기 때문에 女性學을 학문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그만큼의 문제점이 뒤따른다. 또한 女性學을 大學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敎授하는 데에도 학문간의 중복이나 괴리, 갈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현재 女性學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當面課題 중의 하나라고 보겠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여성학 강사들의 전공의 다양성과 관련이 된다. 즉 여성학 강사 또는 연구자들은 각자 자기의 전공분야에서는 깊이 있는 연구와 강의를 해낼 수 있으나 다른 분야와 중첩된 측면에서는 표면적인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학을 전공하지 않고 문학이나 교육을 전공한 강사일 경우 그 학문의 관점에서 여성의 문제점을 보고 연구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법률이나 정치와 관련되는 영역을 만나게

되면 전공이 다른 관계로 극히 피상적인 강의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안목에서 여성의 문제를 탐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학 전공자가 가능한 한 여성학 강의를 맡음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팀 티칭(team-teaching)에 의한 多學問的 接近을 시도한다고 하여도 여성학 강좌를 책임받고 이끌어 나갈 교수 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성학의 내용을 영역화하여 2~3명의 강사들이 여성학의 몇 가지 중요 영역을 맡아 강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점은 여성학의 학문적 성격과 목표 및 내용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탐색·정의하는 문제이다. '여성'이라는 접두어나 접미어가 첨가되어 있으면 모두 '여성학' 강좌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학'의 독특한 학문적 배경과 철학, 교육 목표와 내용을 다루는 것만을 여성학이라고 지칭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여성학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토의하고 연구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女性學의 研究 문제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研究가 필수적인 것임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학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방법도 다양하다고 생각된다. 인문과학분야에서 여성을 연구하는 방법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여성을 연구하는 방법과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같은 尺度로 비교·검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大學에서 女性學 강좌를 담당하고, 女性學에 관심을 가진 研究者들의 협력체제는 이런 점에서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女性學은 우리나라 大學에서 비교적 나이 어린 학문 분야 중의 하나이다. 또한 女性學은 아직 하나의 학문으로서보다는 교양강좌로서 먼저 알려진 분야이기도 하다. 여성학에 관심을 가진 敎授들의 협력과 부단한 연구 없이 학문으로서 별판을 굳히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